

국수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첫 강제 수사

수사관 영장 제시에도 일몰까지 대치 결국 무산
'尹 내란혐의 피의자' 적시 긴급체포 가능성도
민주, 오늘 탄핵안 재발의 14일 오후 5시 표결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의 거부로 무산됐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2·3·13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투입 인력은 총 60여명이다.

오전 11시55분께 대통령실 임구 민원실에 도착한 경찰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대통령 경호처와 출입 절차,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다렸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함에 따라 대치 끝에 일몰 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까지 이날 일몰은 오후 5시14분 전후였다.

경찰은 앞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대통령 관저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계엄군 수비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종로구 서울경찰청, 영등포구 국회경비대도 압수수색했다.

통상 압수수색영장의 유효 기간은 1주일 이내다. 경찰은 이날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다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전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추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요구안 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켜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내란죄)으로 고발됐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12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날 오후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성안 작업이 길어지며 발의 일정은 12일로 늦춰졌다. 본회의 개의 전에 발의하면 본회의 보고와 표결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 기자



밝은 표정의 한강 작가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메달과 증서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 한국 첫 노벨문학상 품에 안았다

“친애하는한강” 호명 기립박수...스웨덴 국왕 메달·증서 수여
연회서 영어로 수상 소감 “어두운 밤에도 우릴 잇는 건 언어”

소설가 한강(54)이 10일(현지시간)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문학가 반열에 우뚝 섰다. ▶관련기사 5·6면

한강은 이날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diploma)를 받았다.

한강은 시상식 후 연회에서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영어로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언어는 이 행성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하며,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고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상식은 국왕의 입장으로 시작됐다. 이어 오케스트라 연주로 모차르트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강이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입장해 시상식장 무대 중앙 원편에 앉았다.

한강은 부분별 시상 순서에 따라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의학상

자들에 이어 네 번째로 호명됐다. 한림원 종신위원인 스웨덴 소설가 엘렌 마손은 시상에 앞서 5분가량의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들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했다. 마손은 이어 영어로 “친애하는 한강”이라고 부르며 “국왕 폐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청했다.

한강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가운데로 향하자 장내 참석자들이 모두 기립했고, 그가 메달과 증서를 받아 들고 환한 미소를 띠며 국왕과 악수하자 박수가 쏟아졌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다. /연합뉴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는 것은 2000년 평화상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며, 문학상을 받는 것은 1901년 이상이 처음 수여된 이래 123년 만의 일이다.

노벨상을 상징하는 ‘블루키렛’을 밟은 한국인은 한강이 처음이다. 평화상 시상식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려 김 전 대통령은 오슬로에서 상을 받았다.

시상식을 마친 뒤에는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에서 연회가 열렸다. 오후 7시에 시작된 연회는 국왕과 총리, 스웨덴 한림원 등 수상자 선정 기관 관계자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 사이사이 공연이 펼쳐지며 4시간 넘게 이어졌다.

연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순서는 각 수상자의 소감 발표였다. 행사 진행자는 한국어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소개하게 돼 영광입니다”라며 소감을 칭했고, 한강은 4분가량 발언했다. /연합뉴스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검찰과 2파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적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

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상계엄 수사는 크게 경찰·검찰·공수처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번 공조본 출범으로 비상계엄 수사는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군검찰의 2파전으로 정리된 형국이다. 다만, 공조본은 향후 검찰이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에서 떠나는 - 간단 편리 해외여행

일본

나가사키
화,목,토 제주항공
24.12.8 ~ 25.3.29

오사카
매일 진에어
24.12.2 ~ 25.3.29

나리타
매일 진에어
24.12.2 ~ 25.3.29

대만

타이베이
화,토 제주항공
24.12.8 ~ 25.3.29

매일 진에어
24.12.2 ~ 25.3.29

태국

방콕
화,목,토,일 제주항공
24.12.8 ~ 25.3.29

필리핀

마닐라
주 2회 로얄에어필리핀
25.1월 ~ 25.3월

베트남

나트랑
주 2회 범부항공
24.9.15 ~ 25.3.30
수,토 비엠펙항공
24.11.26 ~ 25.3.12

다낭
주 2회 범부항공
24.8.5 ~ 25.3.25
수,토 비엠펙항공
24.11.2 ~ 25.3.15

달랏
주 2회 비엠펙항공
25.1.2 ~ 25.2.27

하노이
수,토 베트남항공
24.9.18 ~ 24.12.21

푸꾸옥
주 2회 비엠펙항공
24.12.20 ~ 25.3.2

캄보디아

시엠립
목,일 캄보디아에어웨이
24.12.29 ~ 25.3.13

말레이시아

코타나카발루
화,금 제주항공
24.12.8 ~ 25.3.29

라오스

비엔티안
주 2회 라오항공
24.10.3 ~ 25.3.24

루앙프라방
주 2회 라오항공
24.12.1 ~ 25.2.27

중국

항저우
수,일 룽에어
24.10.2 ~ 25.3.26

장가계
화,금 사천항공
24.10.27 ~ 25.3.29

무안-제주

월,수,금,일 제주항공
24.12.9 ~

제주-무안

매일 진에어
24.12.2 ~

MUAN INTERNATIONAL AIRPORT